



平山申氏宗報

(0455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 平山申氏大宗中

TEL : 02-776-6111, 6151, 7978 · FAX : 02-776-7990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 E-메일: pyongsan777@naver.com

春川墓所 033-243-2076
表忠齋 053-985-1330
龍山壇 061-363-1495
德陽書院 010-8762-7799



發行人 申 澈 秀
編輯人 申 澈 秀
印刷人 宋 永 哲



신년사 (新年辭)



[신철수 도유사]

경애하는 평산신씨 종원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국에
계시는 70만 종원 여러분의 가정
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삼가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0년 4월 9일, 명예
스러운 평산신씨대종중 도유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

사를 드리며 평소 평산신씨대종중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종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경자(庚子)년을 돌아해보면 그 어느 해보다도 국
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년초
부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시작하여 기나긴 장마, 폭
염, 태풍, 폭우 등으로 유례없는 자연재해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으나 코로나19는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전세계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21년 신축(辛丑)년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떨
쳐내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종중에서는 그동안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신규건물 구입을 2021년 1월 11일 계약체결하고 2월
15일 잔금지급과 동시에 건물을 인수받아 임대료수입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써 대종중 운영에 충분하지는 않지
만 기본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였고, 현재의 아세아빌딩은
1층 주차장을 개량하여 사무실이나 영업공간으로 임대하
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춘천시 서면 신
매리의 대지와 임야 일부가 도포서원(道浦書院)복원 등
을 포함한 “춘천 신매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
획”에 따라 수용되고 토지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
므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면 춘천시 요선동의 130여평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수입을 창출하는 방안을 면
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7년은 시조 장절공(壯節公)께서 순절(殉節)
하신지 1,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에는 가칭 “장절
공 순절 1100년 기념사업단”을 구성하여, 2027년까지
“평산신씨천년사”의 오류를 수정하고 내용을 보완, 추가

하여 “평산신씨 천백년사”를 발간하고, 대종중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으로 안정적인 수입구조의 확립방안을 모
색하며, 춘천묘역의 유지·발전방안과 향사(享祀)의 제
례의식을 원형보존하고 기록물을 발간하는 등 중장기적
인 보전(保全)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
한 교육투자 및 전체 종원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대해 아
이디어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며 가능한 것부터 실행에
옮기는 일에 착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장절공 순절 1,100년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뜻깊은 전시
회나 학술발표회 등 많은 행사를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한 다각도의 평산신씨대종중
청사진을 “장절공 순절 1100년 기념사업단”에서 담당하
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종중 제반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
고 많은 종원들이 대종중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
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대종중 업무의 전산화(電算化)에
대한 분석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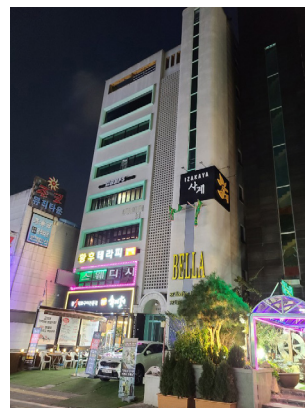
평산신씨대종중의 임원 여러분, 그리고 70만 종원 여
러분, 금년 한 해 부디 건강하시고 대내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대종중의 각종 행사와
업무진행에 뜨거운 성원과 격려,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
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元旦

평산신씨대종중 도유사 신철수(申澈秀) 拜上

재산관리위원회

- 대종중 건물구입을 의결하다 -



재산관리위원회(위원장
鳳湜)는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종중 건물구입
의 건을 상정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중심상업지
역에 위치한 대지 120평,
지하1층 지상7층 의 건물
로 엘리베이터가 있고 주차
대수 10대이며, 1995년
준공되어 2018년 리모델

링한 토지와 건물을 45억 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사진 참조)

이곳은 수원시청 뒤편으로 수원시청에서 200m, 수인분당선(왕십리~분당~수원~인천) 수원시청역에서 400m에 위치한 상업지역이며, 임대료 수입의 년 수익률은 5.2% 수준이다.

그동안 재산관리위원회는 봉식(鳳湜) 재산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현덕(鉉德)부위원장, 현화(鉉和)·현주(鉉珠)·언권(彦權)·재철(在澈)·동천(東天)위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좋은 물건을 찾아내기 위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노력하였다.

당초에는 대중중의 아세아빌딩을 매각하여 대중중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합쳐서 하나의 번듯한 건물을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세였으나, 아세아빌딩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만도 13억 원이고, 신규 건물을 구입하면 취득세 등이 4억원, 이사비용 등이 1억 원 소요되어, 80억원 정도의 신규건물구입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에서 적당한 건물을 찾아 나섰으나 마땅한 건물이 나타나지 않고, 아세아빌딩의 매각이 전혀 진척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현재 보유자금 범위 내에서 별도건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방향전환이 불가피했다.

지난해 10월 초에는 군자역 인근의 5층 건물이 물망에 올라, 가격이 적정한지 임대수요는 양호한지 등을 조사하면서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매도의를 철회하여 허탕을 치고, 10월 하순에는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의 5층 건물에 대해 조사와 현장답사, 계약조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매도가격을 '인상 하겠다' 선언하여 매입을 포기해야 했다. 12월에는 행당역 인근 4층 건물에 대한 현장답사를 12월 27일(일요일)에 실시하였으나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다시 물건 찾기를 서둘러 2021년 1월 4일(월)에는 영등포동의 4층 건물, 답십리동의 6층 건물, 천호동의 6층 건물, 상계동의 3층 건물을 현장 답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 인계동 건물이 물망에 올라 1월 8일의 제5차 재산관리위원회에서는 옆 5층 건물, 영등포동 4층 건물, 상계동 3층 건물, 수원시 인계동 7층 건물에 대해 깊이 있는 자료검토와 설명, 각 물건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향후의 가치상승에 대한 전망 등을 숙고하고 논의하여 수원시 인계동 건물을 구입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재산관리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보고받은 철수(澈秀) 대중중도유사는 위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곧바로 계약협의를 진행하여, 2021년 1월 11일(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 15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매도인 측과 합의하였다.

한편 대중중 옆 건물(충무로3가 24-16)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재산관리위원회는 다각도의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였다.

우선 제시된 가격이 주변시세에 비하여 5~10억원 비싸다는 분석으로, 이는 부동산 감정평가사로 오랜 실

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현주(鉉珠)위원과 충무로3가의 5개 부동산사무소에 문의해 본 결과이다.

그러면 붙어있는 옆 건물이기 때문에 시너지효과(上乘效果)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검토해 보면, 벽을 헐어내고 2개의 건물을 1개의 건물처럼 사용하여 임대료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겠으나, 건물 사이에 간격이 떨어져 있고 2개 건물의 각층 층고가 서로 달라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음으로는 2개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개의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신축에는 최소 4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대중중의 자금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신축해도 용적률 600%의 4대문 안 역사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연면적을 크게 늘릴 수 없어 임대료수입의 증가가 미미하다는 것을 서울시 중구청의 건축과와 중구청 인근의 건축사 사무실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재산관리위원들은 대중중에 접수된 80여건의 건물을 대상으로 수많은 검토와 분석을 계속하며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지혜를 더해, 임대료수입이 양호하면서도 대지면적이 넓고 지가상승이 기대되는 건물을 구입하고자 노력하였다.

종규 개정작업

편집·종규위원회(5, 6차) 개최



[5차 회의 모습]

편집·종규위원회(위원장 彪均)는 매월 첫째 화요일의 회의를 거르지 않고 진행하여 11월 3일에 5차회의, 12월 1일에 6차 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종규의 개정작업과 신규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6개월에 걸친 연구와 검토를 통해 평산신씨대중중 규약, 평산신씨파종중 규약준칙, 평산신씨 시도화수회 규약준칙, 평산신씨 파종중 및 시도화수회 대의유사 선출등록 규정, 평산신씨 유적지 규약준칙, 평산신씨대중중 산하조직 관리규정, 평산신씨대중중 위원회 규정, 종보광고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평산신씨대중중 도유사 선거관리 규정의 제정안을 준비하였다. 2021년에는 계속하여 향사와 묘역 및 유적지관리에 대한 사항, 대중중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차세대 교육과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대중중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규정의 제정을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2020년 하반기 인터넷족보 수단신청 내용

2020년도 하반기에 대중중에서 접수한 인터넷족보 수단 신청은 모두 인터넷족보에 정상적으로 등재하고 수단비는 배분율에 따라 파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가. 총접수량 : 498명

나. 접수수단비 : 34,529,000원

다. 배분

1) 대중중(30%) : 10,358,700원(족보등재비 및 홈페이지운영비에 사용)

2) 파중중(70%) : 24,170,300원

라. 파별 배분 내역

파 별	수단비(원)	파 별	수단비(원)
문희공파	320,600	한성운공파	4,228,700
사간공파	17,683,400	제정공파	700,000
이상공파	96,600	진사공파	1,141,000

- 인터넷족보 수단 신청 방법

(신규, 수정, 첨삭, 사진등재, 묘소위치표시 등)

종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같이 파중중에 제출하면, 파중중에서는 취합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대중중에 제출하고, 수단비는 대중중지정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대중중에서는 접수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정회사에 등재의뢰 한다. 상반기(5월말)까지 접수분은 7월 1일자로, 하반기(11월말)까지 접수분은 익년 1월 1일자로 매년 2회 등재된다.

- 인터넷족보 열람 방법

‘평산신씨대중중 홈페이지’는 누구든지 방문하여 ‘평산신씨’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열람할 수 있으나, 다만 ‘족보보기’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송금(1년 3천원, 5년 일 만원)하셔서 종친회원이 되고 족보를 볼 수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방문하기 바란다.

2021년도 대중중 표창자 및 장학생 선발

- 선발인원 : 표창-10명내외, 장학생-20명
- 접 수 : 2021년 1월 1일 ~ 1월 31일
- 표창 시상 : 2021년도 3월 말 대중중 정기총회 (또는 별도통보)
- 장학생 선발 : 2021년 2월 말 통보 및 장학금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 : 대중중 홈페이지, 종보 187호 (2020. 10. 31) 참고

종보 구독, 주소변경 : 02-776-6151, 6111

[3大 遺跡址 碑文②]

시조 장절공 충렬비명 : 全文 始祖 壯節公 忠烈碑銘(대구 표충재 소재)



[충렬비각]

공산 동수公山桐數는 곧 고려태사 장절 신공高麗太師壯節申公이 목숨을 바친 곳이다.

공의 죽음이 후당 천성後唐天成 2년(서기 927)인지라 이제 7백여년의 옛 일이로되, 이 동수桐數를 지나는 사람들이 아직도 늙은 공을 추상하여 마지아니하고, 이따금 공의 사적事蹟을 이르기를 환히 엿그제 일과 같이 하더니, 황명 만력皇明萬曆 정미년(宣祖 40, 서기 1607)에 이르러 공의 외예外裔인 류공 영순柳公永詢이 관찰사로 부임하여 삼가 유지遺址를 살펴 보고 개연慨然히 선조를 추념하기를 『오직 이같은 대충大忠 대열大烈로서 쓸쓸하게도 현각顯刻(碑文을 돌에 새김)마져 없으니 이는 실로 내 책임이다.』하고서 마침내 공의 후손으로 영남에 사는 이들을 앞세워 공인工人과 재資材를 모으게 함에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에 지묘사智妙寺 옛터에 공의 사우를 창건하고 춘추로 양일良日을 가리어 관가官家에서 제물祭物을 마련하고 후손의 거주居住한 이로 하여금 향화香火(제사)를 받들어 끊임이 없게 하니, 아마도 공의 신명神明은 황홀히 감응하여 여기에 오르내릴 것이다. 이어서 돌을 깎아 새기고자 하여 흠欵에게 글을 지으라고 하니 흠 또한 공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흠은 삼가 재배하고 서叙하여 이르기를, 공의 절개는 이미 강상綱常을 붙들어 심었고 공의 이름은 우주에 걸쳐 가득하며 공의 혼기魂氣는 충분히 천출입인天出入하여 변화變化를 측량할 수 없으니 돌이켜 생각하건대, 여기에 더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리요마는, 그 혹시 그 위대하고 드높은 충절이 이로 인해 비슷하게나마 나타난다면 충의忠義를 권장하고 후세를 경계하는 공로가 어찌 적다고 할 것인가. 류공柳公은 그 먼저 힘써야 할 바를 안 것이라 하겠다.

이에 공의 행장行狀에서 간추려 서序하건대, 신씨申氏는 곡성谷城에서 나왔는데 고려 태조가 평산平山으로 본적을 하사하였다. 공의 휘諱는 숭겸崇謙이요 처음 이름(初諱)은 능산龍山이라 하였고 그의 자字는 사승史乘(史記)에 전하지 아니한다. 태어나면서부터 권용拳勇과 기지機智가 있었더니, 혁거스국赫居國(新羅)의 쇠잔한 때를 당하여 궁예弓裔와 견훤甄萱이 반역하여 동쪽과 남쪽에 웅거하자 공은 천명天命

이 돌아가는 바를 알고 고려 태조를 도와 왕위王位에 오르게 하였으며, 수륙水陸을 정벌함에 항상 공의 힘을 많이 받았다.

견훤이 신라의 도성都城에 침입함에 미쳐 고려 태조가 정예 기병精銳騎兵을 출동시켜 공산 동수公山桐蔭에서 견훤을 맞아 싸울 적에, 견훤의 군사들이 고려 태조를 포위하여 형세가 심히 위급하였는데 공이 대장으로서 얼굴이 고려 태조와 같은지라 이에 태조를 대신하여 죽기를 자청하여 어거御車(임금이 타는 수레)에 갈아타고 나아가 싸우다가 돌아가니, 태조가 이를 힘입어 위기에서 빠져나게 되었다. 견훤의 군사들은 공을 고려 태조로 알고 공의 두상頭上을 취하여 돌아갔다.

고려 태조가 공의 시신을 찾아내어 공인工人에게 명하여 머리와 얼굴(頭面)을 새겨 만들고 조복朝服을 갖추게 하여 광해주 소양강 비방동光海州昭陽江悲方洞에 이장케 하니 곧 지금 춘천부春川府이다. 벽상호기위 태사 개국공 삼중대광 의경익대 광위이보 지절지정공신壁上虎騎衛太師開國公三重大匡毅景翊戴匡衛怡輔砥節底定功臣을 추봉追封하고 시諡를 장절壯節이라 하였으며, 전교傳敎하여 광익효절현양匡翊效節獻襄의 호號를 더하고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하였다.

고려 태조가 팔관회八關會를 베풀 때에 신상神像이 일어나서 춤을 추었던 기이함이 있었더니 예종睿宗이 서도西都(平壤)에 순행巡幸한 때에는, 또 신상神像이 말을 타고 뛰었던 기이함이 있어 모두 산사람(生人)과 같았으며, 세대가 바뀌어도 오히려 이를 전승하여 기적으로 삼으니 공과 같은 경우야말로 이른바 살기를 기다려 살지 않고 죽을 때를 기다려 죽지 않음이 아니겠는가. 예종睿宗은 시가詩歌를 내리어 찬미讚美하였고 조선조에 들어서는 자손이 끊임없이 관작官爵을 이어받으니 이는 대개 공의 유음遺蔭이라 할 것이다.

곡성谷城에 있는 공의 사우祠宇는 외에外裔인 한공 준겸韓公浚謙이 관찰사로 있을 때 극력極力하여 면모를 새롭게 하였는데, 류공柳公이 잇달아 이 거사舉事를 이룩하였으니 두루 장한 일이다. 고려 태조가 처음 일어 날 당시, 좌우左右에서 보필한 자가 얼마나 많았던가. 저 5태사五太師(裴, 洪, 卜, 庚, 崔暉) 같은 경우도 실로 공과 필적할 만하여 그 성취한 바가 누구인들 아름답지 않으리오마는 세인의 이목에 뚜렷하게 빛나는 것을 지적한다면 반드시 공으로 우두머리를 삼게 되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훈명勳名은 한 시대에 그치되 충의忠義는 영원토록 전하는지라 서로 똑 같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거사야말로 특별히 우리 종친의 다행만이 아니라 이로써 경모景慕 감발感發하여 충의忠義를 흥기興起케 함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 이를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 하여 이마에 땀을 적시는 자는 있지 않겠는가. 공에게서 보고 느낀다면 권장하고 경계하는 점이 다 들어 있다고 하겠다. 아! 명銘하여 이르기,

임금이 천명天命을 받으실 제 공公은 도와서 성취케 하였고 한번 소리쳐 의기義旗를 높이 5백년 터전을 굳히셨도다. 마치 한漢나라의 기신紀信이 몸으로 인仁을 이룸과 같았는데 후손後孫들이 여경餘慶을 거두어 면면綿綿한 유업遺業이 떨쳤도다.

여기 태상老相①이 있으니 류공柳公은 그 어진 관원으로 부월斧鉞②을 잡고 남南녘에 와서 여러 곳을 순선巡宣할 제, 이에 동수桐蔭③에 걸음을 멈추고 은연隱然한 가운데 서글퍼했더니 저 옛터에 자리를 잡고 빗돌을 세워 꽃다움을 새기었도다.

우뚝한 그 자취여! 높으신 그 이름이여!

위엄스 무용武勇이요 열렬烈烈한 정열貞烈이로다.

조관朝冠의 비녀(簪)는 장엄하고, 방울단 기리는 휘날리는 도다.

으스스 찬바람 일 제 신령神靈은 여기 내리시니

갑자기 일어난 빛이 엄히고 뒤섞이어 눈부시도다.

군자君子가 남기신 은택恩澤은 오래갈수록 새로우리니

두고두고 천추千秋 만세萬世에 우리 백성 도우시리도다.

만력萬曆 35년 정미(宣祖 40, 서기 1607) 3월에 예손裔孫 자현대부 예조판서 겸 예문관제학資憲大夫禮曹判書兼藝文館提學 흠欽은 찬撰하고, 통정대부 행여주목사通政大夫行驪州牧使 김현성金玄成은 서書하고, 통정대부 행안변도호부사通政大夫行安邊都護府使 김상용金尙容은 전篆하다.

註 ① 宅相=外甥 또는 外孫을 이른다. 쑤나라 魏舒의 故事에서 由來한 말이며, 여기서는 觀察使 柳永詢을 가리킨다.

② 斧鉞=임금이 出征하는 大將에게 주던 도끼, 轉하여 刑具 또는 軍器. 斧鉞을 仗하였다고 한 것은 觀察使가 節度使를 겸했기 때문이다.

③ 桐蔭=壯節公의 殉節地인 公山桐蔭을 가리키는 물론이나 이 碑銘 序言에〈人之過是藪者猶凜凜想公不已〉라 한 것을 보더라도 이 一帶에 본디 오동나무숲이 많았던 까닭으로 붙여진 이름일 듯하다.

忠烈碑銘并序〈原文：碑銘 擧本依據〉

公山桐蔭即高麗太師壯節申公致命之所也公之死在後唐天成二年距今七百有餘載人之過是藪者猶凜凜想公不已間能道公事赫赫若前日逮皇明萬曆丁未公之外裔柳公永詢仗鉞來莅粵瞻遺址慨然原念本始曰惟是大忠大烈昧昧沒顯刻繫吾責也遂倡起公後在嶺南者鳩工聚材罔不率從乃冊公祠宇於智妙寺基官供俎豆於春秋良日令雲仍之居止者奉香火毋替庶公之陞陞陞降於茲也仍伐石勒之求其辭於欽以欽亦公裔也欽謹再拜而言曰公之節既扶樹綱常公之名亘滿宇宙公之魂氣足以出天入人變化不測顧何事於斯而厥或逸偉崇英賴以得其髣 則於勸忠詔後豈淺淺哉柳公知所先務矣肆撫公行狀爲序申出谷城麗祖賜籍平山公諱崇謙初名山史失其字生有拳勇機智值赫居國衰弓裔甄萱反據東南公知天命有歸翊麗祖登大位水陸征討皆倚公爲重暨甄萱之入羅都也麗祖發精騎邀萱於公山萱兵圍麗祖甚急公爲大將而貌類麗祖請以身代乘御車出戰死之麗祖得脫萱兵以公爲麗祖取頭以去麗祖求公尸命工雕造頭面備服移葬於光海州昭陽江悲方洞今之春川府也追封爲壁上虎騎衛太師開國公三重大匡毅景翊戴匡衛怡輔砥節底定功臣諡曰壯節教加匡翊效節獻襄之號配享廟庭麗祖設八關會有神像起舞之異睿宗之省西都也又有神像騎馬俱如生焉易世猶傳之以爲奇跡若公非所謂不待生而存不隨死而亡者耶睿宗賜詩歌以美之入我朝子姓繩繩袍笏相襲蓋公之遺餘也公祠在谷城者外裔韓公浚謙之按廉也亟重新之而柳公踵有此舉盛矣哉當麗祖之興也左右匡弼者何限有如五太師實方駕於公其所就非不懋焉而指其焯人耳目者則必以公爲首斯曷故也勳名止乎一世忠義傳於無極其不可以並也明矣然則此舉也非特吾宗之幸也其不有景慕感發而興起者乎抑不有覽此而忸怩泚頰者乎觀乎公勸戒俱矣吁銘曰

王受明命公贊襄之一呼舉義五百基昌若漢紀信以身易仁收餘于
後綿緒振振厥有宅相柳公其良授鉞巡宣火維其方爰止桐華隱中如
傷相彼舊址樹石揭芳卓卓其蹟巍巍其名洸洸其武烈烈其貞哉哉其
簪旒旒其旗有風淒其神之來思歎其有光紛陸離兮君子之澤久而新
兮於千萬祀庇我民兮

裔孫資憲大夫禮曹判書兼藝文館提學欽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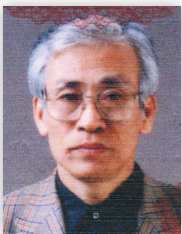
通政大夫行驪州牧使金玄成書

通政大夫行安邊都護府使金尙容篆

萬曆三十五年丁未三月 日立

파종중 · 화수회 소식

현령공 파조(縣令公 派祖) 향사 및 정기총회



[신호균 도유사]

현령공과 종중(도유사 豪均)에서는 2020년 11월 16일(월, 음력 10월 2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파조(派祖) 휘 감 현령공(諱鑑 縣令公 15世)단소에서 약간 명의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사를 봉행하였다.

현령공 휘諱 감鑑은 14세 중부시령

공 안(晏)의 첫째 아드님으로[둘째가 휘(諱) 개(槩) 문희공, 셋째가 휘(諱) 효(曉) 정언공] 고려조(高麗朝)에서 집현전랑(集賢殿郎)을 지내시다가 조선(朝鮮)이 개국(開國)하자 서흥현령(瑞興縣令)에 제수되었으나 불취(不就)하고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고려의 유신(遺臣)들과 함께 지내다가 두문동 화재시 순절하였다. 묘는 황해도 평산군 세곡면 수동리 선영(父:晏) 우록 간좌(艮坐)에 모셔져있다.

이날 향사는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행사를 최소화하라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극히 소수만 참석하였지만 호군도유사가 순수 정성들여 장만한 제물로 파조님에 대한 향사는 엄숙한 가운데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행사를 마친 후 인근 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2020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금년 진행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기총무의 간단한 보고가 이어지고, 모든 사항은 박수로 승인하였다. 또 현령공 호군도유사는 종원들

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강에 유의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행사를 종료하였다.

문희공 파조(文僖公 派祖) 향사 봉행



[신봉식 도유사]

문희공과 종중(도유사 鳳湜)에서는 2020년 11월 15일(일, 음력 10월 1일) 11시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380 파조(派祖) 휘 개 문희공(諱槩 文僖公 15世) 단전(壇前)에서 공(公)과 배위(配位) 두분의 향사를 봉행하였다. 이번 향사는 코로나19 전염병

방역지침에 따라 향사는 파종중 임원만 참석하여 봉행한다는 내용을 종원들에게 수일전에 알려주었다.

초헌관에는 봉식(鳳湜) 문희공도유사, 아헌관에는 근영(芹泳) 충익공종중 도유사, 중헌관에는 처사공 준식(竣湜)宗이, 집례에는 동원(東元)宗이 분정하고 단출하지만 엄숙한 가운데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공(公)의 묘소는 황해도 평산군 세곡면 창평리 유좌에 정정부인 선산 김씨와 쌍분으로 모셔져 있어서 남북으로 갈린 이후, 묘전(墓前)에서 향사가 불가능하자 1986년도에 지금의 위치에 있는 공(公)의 초배(初配) 정정부인 평강 채씨의 묘소 좌우에 두 분의 단을 만들어, 지금까지 매년 음력 10월 초 하룻날에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매년 향사 후 개최하던 정기총회는 부득이 취소하였다.

정언공 파조(正言公 派祖) 향사 봉행





[신문철 도유사]

정언공파 종중(도유사 文澈)에서는 2020년 11월 15일(음력 10월 1일)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선영에서 파조(派祖)이신 휘 호 정언공(諱 曉 正言公) 묘소를 비롯한 선영의 묘전에 종중의 소수 인원만 참석하여 2020년도 향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정부방역지침을 따르고, 또 종원들의 적잖은 연세 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자칫 여러 종원 가족께 씻지 못할 아픔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상임유사들 까지도 참석을 제한하고, 문철 도유사를 비롯한 시향 분정 필수인원(20명)과 두 분의 명예도유사(지수, 철수)가 참석한 가운데, 파조 정언공(正言公)과 공의 큰 아드님이신 16세 휘 자희 전직공(諱 自熙 殿直公), 셋째 아드님 16세 휘 자계 주부공(諱 自繼 主簿公), 또 공의 손자 17세 휘 세경 사직서령공(諱 世卿 社稷署令公) 묘소에서 각각 奉行하였다.

비록 참석 규모는 환경 탓으로 축소하였지만 예나 변함없이 엄숙한 가운데 경건하고 성스럽게 향사(享祀)를 봉행하였다.

※ 시향성금 내역

- 목사공종중 회장 현진 10만원
- 이간공종중 회장 최균 10만원
- 기서공종중 회장 봉균 30만원

한성윤공 파조(漢城尹公 派祖) 향사 봉행 및 자생한방병원 의료봉사 활동



[신규철 도유사]

한성윤공파 종중(도유사 圭澈)에서는 2020년 11월 19일(음력 9월 19일) 11시에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소재 파조(派祖) 휘(諱) 하(夏) 한성윤공 단(壇)에서 제 604주기 향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참

제자를 상임유사 이상의 임원들(35여명)과 대종중 신철수(申澈秀)도유사와 현기(鉉基) 총무부장을 비롯하여 자생한방병원 잠실병원장 신민식의 병원관계자 등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초헌관에는 신민식(申敏湜 34세) 자생한방병원 잠실병원장으로 아헌관에는 신광원(申光源), 종헌관에는 신경철(申庚澈)이 분정 되고, 축관에는 신동신(申東信), 집례에는 신준철(申峻澈), 또 집사에는 신장섭(申將燮) 종과 신재덕(申載德) 종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 날 자생한방병원(이사장 俊湜, 34세)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21개병원에서 엄선된 병원장 4분과 의사, 간호사 등 고급 의료진 18명으로 구성된 자생한방병원 의료봉사단을 2개 의료진으로 나누어, 한 팀은 둔덕리 한성윤공파의 재실(장령공 회관)에서 우리 일가분들과 동네어르신 50여명에게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또 한 팀은 서천군청 소재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 건물(사진:4층 건물 전체)에서 서천군 13개 읍면의 노인회 각 분회에서 오신 어르신 150여명이 진료 혜택을 받았다.

한적한 지방의 군 단위에서 하루 200여명의 어르신들께서 무료로 진료 받는 일은 역사에 없던 일이라면서 온 군민들에게 의료봉사를 실시하여 많은 군민들에게서 찬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한성윤공종중 규철도유사는 많은 의료진을 동원하여 의료봉사활동을 하여 주시고 단(壇)조성 성금까지 지원해 주신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신준식(申俊湜) 박사에게 종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한편 한성윤공종중에서는 향사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규철도유사의 후임으로 신동수(申東洙, 33세)도유사를 선임하고 기타 임원도 개선하였다.

▶ 헌성금 및 조화환 내역

- 헌성금

성명	금액	비고	성명	금액	비고
대종중도유사	금일봉		광주 형식(亨湜)	20만원	
대종중도유사 철수(澈秀)	금일봉	개인	광주 승만(承萬)	10만원	
용산단도유사 현대(鉉大)	금일봉		서천 준철(峻澈)	10만원	
대전충남화수회장 민철(民澈)	금일봉		성남 명철(明澈)	10만원	
선원공(漢)종친회 동수(東洙)	10만원		대전 동진(東振)	10만원	
서운(漢)종친회 재곤(載坤)	10만원		서천 재덕(載德)	10만원	

성명	금액	비고	성명	금액	비고
휘공(漢)종친회 명철(明澈)	10만원		대전 주철(周澈)	10만원	
군수(漢)공종친회 동엽(東曄)	10만원		서울 재순(在淳)	10만원	
군산 흥섭(興燮)	30만원		강원양양 병철(丙澈)	10만원	
광주 동수(東洙)	20만원		대전 진섭(辰燮)	5만원	

- 조화환 : 대중중 도유사 신철수 1점.
- 용산단 도유사 신현대 1점.
- 장령공(漢) 종친회장 신상두 1점.

한성윤공파조 휘(諱) 하(夏) 단(壇) 봉축 고유제



한성윤공파 종중(도유사 규철)에서는 지난 11월 4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둔덕리 산 39-5에 봉축(封築)한 파조 단(壇)에서 봉축(奉築) 고유제(告由祭)를 거행하였다.

파조 휘 하(派祖 諱 夏)의 묘소는 함경북도 함흥군 덕천면 덕음암동 계좌(癸坐)에 모셔져 있어서 그 동안 후손들은 향사일인 음력 9월 19일만 되면 향사 장소를 물색하느라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다.

마침내 2014년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는 도유사로 선임된 동진(東振, 35세)도유사의 주선으로 향사 장소를 충남 서천의 한성윤공파 장령공(諱 士溫, 17세)재실에서 파조향사를 올리게 되었으며, 그 후 동진도유사의 뒤를 이은 규철도유사의 재임기간인 2018년 정기총회에서 파조 단(壇)을 봉축(封築)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장령공(漢)종친회(회장 규철)에서는 종원들이 파조 단(壇)조성 부지로 500평(2,000만원 상당)을 파중중에 희사하기로 결의 한 후, 우선 1차적으로 200평을 파중중에 봉헌함에 따라, 파중중에서는 동수(東洙, 33세)상임부도유사를 추진위원장으로 단(壇)공사를 시작한 후 2년 만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모두는 일곱 소종중과 68명의 후손들을 비롯하여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박사 34세) 등의 정성어린 헌성금으로 이루어 졌으며, 아래 헌성자는 단(壇) 경내에 석각으로 영구보존 되어 있다.

▶ 단(壇) 조성 헌성금 내역(100만원 이상자)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준식	2,000만원	도유사 규철	100만원
장령공종친회(회장 규철)	부지500평	양양 병철	100만원
선원공종친회(회장 동수)	500만원	상임유사 재순	100만원
중추공종친회(회장 상두)	300만원	광주 재관	100만원
휘공종친회(회장 명철)	200만원	감사 주철	100만원
군수공종친회(회장 동엽)	100만원	명예도유사 동진	100만원
서운종친회(회장 재관)	100만원	총무 상두	100만원
상임부도유사 동수	300만원	고문 동우	100만원
감사 형식	200만원	용인 동석	100만원
부도유사 동진	150만원	서울 동훈	100만원
고문 기환	100만원		

* 직책은 당시 또는 현재의 직책, 직책이 없는 종원은 거주지역임

용산단(龍山壇) 향사봉행(享祀奉行)



[신현대 도유사]

2020년 9월 음력 중정일(仲丁日)인 10월31일(토) 전남 곡성군 목사면 동 약강유허지인 용산단에서 종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사가 봉행되었다.

초헌관에는 동주(東宙, 정인공파 35세)가 아헌관에는 완철(完澈, 문희공파 34세)충북화수회장, 중헌관에는 재준(載準, 사간공파36세)무안화수회장, 축관에는 광주 동길(東吉, 문희공파35세)용산단 부도유사, 집례에는 종채(琮彩, 한성윤공파33세)로 분정하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종원들이 참제하지 못했지만 40분간 시조님에 대한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행사를 가졌다.

이날 봉행에 참석한 모든 제관 전원이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현대(鉉大, 한성윤공파 33세) 용산단 도유사는 감사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용산단 종중은 매년 9월 중정일에 시조 장절공의 향사를 봉행한다.

한편 현대 용산단도유사는 지난해에 대중중과 곡성군청에 협조를 간곡하게 이끌어내어 용산단에 소화전(2대) 설치를 비롯 CC-TV 5대 설치, 화장실 일부보수, 관리자 리모델링, 경내 조경공사 등의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또 올해에는 정부사업비 1억2천만원을 확보, 동재 및 서재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다. 또 푸른

숲 가꾸기에 응모하여 올해에 2억6천만원의 정부지원금으로 용산단 주위에 탐방로를 조성하고, 주차장도 확장 정비 및 주위 조정사업도 함께 추진함에 따라 시조 탄생지인 용산단 주위를 공원화하여 전국의 종원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가족단위로 찾아 오셔서 편히 쉬어 가실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향사 분정표

구 분	성 명	비 고	구 분	성 명	비 고
初獻官	申東宙	龍 仁	奉爐	申珉柱	長 興
亞獻官	申杭澈	鎭 川	司尊	申相南	光 州
終獻官	申載準	務 安	奉爵	申白澈	井 邑
執禮	申琮彩	長 興	奠爵	申士鉉	光 州
祝	申東吉	光 州	贊引	申東福	南 原
陳設	申夏燮	光 州	直日	申鉉德	光 州
奉享	申亨澈	井 邑			

-. 성금 내역서

번호	성 명	금액 (만원)	비고	번호	성 명	금액 (만원)	비고
1	대중중도유사	100	서울	21	유섭회장	10	고창
2	동주 회장	100	용인	22	선원공중중	10	고창
3	군수 유근기	50	곡성군	23	종채	10	장흥
4	인현 도유사	50	덕양서원	24	민주전회장	10	장흥
5	상남 회장	50	광주전남	25	재철	10	곡성
6	동언 도유사	50	장군단	26	형철감사	10	정읍
7	상촌종회	30	용인	27	동수도유사	5	광주
8	옥균	30	진천	28	현년전회장	5	광주
9	언창회장	20	영광화	29	근옥	5	광주
10	정현회장	20	해남화	30	경현	5	광주
11	현대전도유사	20	일산	31	백천	5	정읍
12	형식전회장	20	광주	32	세균	5	정읍
13	배식회장	10	고흥화	33	동진감사	5	남원
14	민철회장	10	대전화	34	재춘보좌관	5	장흥
15	명식전도유사	10	광주	35	하섭전도유사	5	광주
16	재열전회장	10	무안	36	동우전회장	5	광주
17	현문도유사	10	표충재	37	순국	5	순천
18	완철회장	10	제천	38	기호	5	곡성
19	재준회장	10	무안	39	현실	5	
20	현석회장	10	담양		총 계	745	

-. 화환 : 대중중 철수도유사 1점

문화공파 대사성공(大司成公) 향사봉행

2020년 11월 16일 (음10월2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1번지 16세 휘 자승 대사성공(諱 自繩 大司成公) 묘전에서 중중 임원진만 참석한 가운데 향사를 봉행하였다.

초헌관에는 영현 대사성공중중도유사, 아헌관에는 현주감사, 종헌관에는 현모종원, 대축은 동주종원, 집

례는 차호감사, 집사에는 동헌宗과 연철宗 등이 분정하고 엄숙하게 제례를 봉행하였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소수의 모임을 지향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각 직파 도유사께서는 금년도 시향은 부득이 임원진만 참석하여 모시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하였다.

내년에는 많은 종원이 참석하여 성대한 제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동리 신재효(申在孝, 현령공파 27世) 선생을 기리는 활동 '동리 국악대상' 행사



[금년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명창 박계향]

판소리 성지인 고창군과 사단법인 동리문화사업회에서는 매년 판소리를 집대성한 동리(桐里) 신재효(申在孝, 현령공파 27世)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1년부터 동리대상을 제정해 매년 11월 6일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동리상 대상자로 박계향 명창을 선정하고 2020년 11월 6일 고창 동리 국악당에서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한 박계향 명창은 1987년 제13회 전주대사습놀이 장원(대통령상)으로 명창 반열에 오른 후 후학 양성과 각종 공연 등으로 판소리 보존과 전승에 공헌해온 공이 커서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날 행사는 1부 시상식과 2부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는데, 유기상 고창군수는 축사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이 가진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판소리를 보존하고 계승하고자 동리정사(桐里精舍: 전국의 소리꾼들이 숙식을 하며 그들이 조리 없이 부르는 판소리 사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공간)를 복원하여 판소리 진흥

발전에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또 이날 행사에는 평산신씨 종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근택 시간공파도유사, 상남 광주전남화수회장, 인현 덕양서원도유사, 고창화수회 영남회장과 유섭 전(前)회장, 영진 재무, 동곤 총무를 비롯하여 현호, 현진, 희철, 영철 宗 등 평산신씨 종원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나게 하였다.

▶동리 신재효(桐里 申在孝, 현령공파 27世) : 1812년(순조 12)~1884년(고종 21)

- 조선 후기의 판소리 이론가·개작자·후원자. -

동리는 전라남도 고창 출생으로 어려서 한학을 배워 사서삼경(四書三經) 제자백가어(諸子百家語)에 능통하여 총명하였고, 또한 효성이 지극하여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아버지에게 수학하였고, 사십이 넘어서 부근에 살던 대 석학과 학문을 의논하였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는 고창현의 향리의 서민들과 깊이 사귀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 여러 향반(鄕班)들이 만장을 써 보낸 것으로 보아, 신분을 넘어서 폭넓은 교유를 맺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는 아버지가 마련한 기반을 바탕으로 35세 이후에 이방이 되었다가 나중에 호장(戶長)에 올랐다. 1876년(고종 13)에 기전삼남(畿甸三南)의 한재민(旱災民)을 구제한 공으로 정3품 통정대부가 되고, 이어 절충장군을 거쳐 가선대부에 승품(陞品)되고, 호조참판으로 동지중추부사를 겸하였다.

신분상승을 꾀하면서도 한시가 아닌 판소리에서 정신세계를 찾은 그는 판소리를 즐기는 동시에 자신의 넉넉한 재력을 이용하여 판소리 광대를 모아 생활을 돌보아주면서 판소리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직선적이고 고졸(古拙)한 성음을 갖추면서 박자가 빨라 너름새를 할 여유가 없는 동편제(東便制)와 유연하고 화려한 성음을 갖추면서 박자가 느려 너름새가 쉽게 이루어지는 서편제(西便制)의 장점을 조화시키면서, 판소리의 '듣는 측면'에 덧붙여 '보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진채선(陳彩仙) 등의 여자 광대를 길러내어 여자도 판소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춘향가>를 남창과 동창으로 구분하여 어린 광대가 수련할 수 있는 대본을 마련하기도 하여, 판소리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광대가>를 지어서 판소리의 이론을 수립하였는데, 인물·사설·득음(得音)·너름새라는 4대 법례를 마련하였다.

인물은 타고나는 것이니 어쩔 수 없으며, 사설의 우아한 표현, 음악적 기교 및 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연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판소리는 상스럽지 않고 한문학과 견줄만한 예술임을 은연중에 드러내었다. 만년에는 <춘향가>·<심청가>·<박타령>·<토별가>·<적벽가>·<변강쇠가>의 판소리 여섯마당을 골라서 그 사설을 개작하여, 작품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게 하고, 상층 취향의 전아(典雅)하고 수식적인 문투를 많이 활용하였다.

그래서 하층의 발랄한 현실인식이 약화되기도 하였으나, 아전으로서 지닌 비판적 의식이 부각되고, 사실적인 묘사와 남녀관계의 비속한 모습을 생동하게 그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판소리가 상하의 관심을 아우르면서 신분을 넘어서 민족문화로 성장하는 데 진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판소리 사설 외에도 30여 편의 단가 혹은 '허두가(虛頭歌)'라고 하는 노래를 지었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재산을 모으는 방법을 다룬 <치산가 治産歌>, 서양의 침입이라는 시대적 시련을 걱정하는 <십보가 十步歌>·<괘심한 西洋되놈>, 경복궁 낙성 공연을 위해 마련한 <방아타령>, 그밖에 <오섬가 烏蟾歌>·<도리화가 桃李花歌>·<허두가> 등이 대표적이다.

고창읍 성두리에 묘가 있으며, 1890년에 한산시회(寒山詩會)에서 송덕비를 건립하였다. (제공 : 고창군 화수회 총무 동곤)

신승겸 장군 충절이야기

『장군님 가라사대, 은밀하게 위대하게』 문화재청장상 수상



[프로그램 포스트]

강원도 춘천시에서 지역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 평산신씨 시조 장절공 신승겸 장군의 충절의 이야기 「장군님 가라사대,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2020년 12월 10일 문화재청이 선정하는 '2020년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에서 우수 문화재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날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하였다고 춘천시는 밝혔다.

이번 우수사업 선정은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한 159개 사업 중 엄중한 평가를 거쳐 1차로 17개 사업이 후보에 올랐고, 2차로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이 되었던 만큼 그 어떤 때보다도 치열하였다고 한다. 「장군님 가라사대,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신승겸장군의 일화를 스토리텔링 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신승겸장군의 충절을 널리 알리는 기회는 물론이고, 방동리 묘역의 가치와 기능을 활용해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한 사업인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다. 이번 심사에서도 지역문화유산에 담긴 장군님의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를 소개한 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규일 춘천시 문화콘텐츠과 과장은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역사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이렇게 좋은 결실을 거두

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1년에도 오래 된 이미지를 가진 문화재가 춘천시를 대표하는 문화향유, 문화예술, 교육체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제공 강원도화수회장 용철, 강원일보 등 종합]

壯節公의 DNA

신용환(申龍煥, 文僖公派35世, 九龍會會長)



[신용환 회장]

◆ 인간은 의(義)와 리(利)의 갈등 속에서 산다.

「利」를 앞세우는 사람을 소인(小人)이라 하고,

「義」를 앞세우는 사람을 대인(大人)이라고 한다.

▶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정의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본성의 하나라고 맹자(孟子)는 정의(定義)했다. 그 증거로 수오지심(羞惡之心)을 들었다. 자기가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에는 부끄러워하는 수(羞) 마음이 생기고 남의 옳지 못한 일을 보고는 미워하는 오(惡) 마음이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내재(內在)된 천성(天性)이라 했다.

수오지심(羞惡之心)은 배워서 생기는 마음이 아니다. 이수오지심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정의이다. 기(氣)가 센 사람일수록 정의감이 강하여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인간(人間)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자기의 목숨이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기(氣)가 센 사람은 「정의」를 「목숨」과 바꾼다. 보통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의는 행동하는 용기이다.

시조(始祖) 장절공(壯節公)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만고의 충(忠)과 절의(節義: 義理와 義節)의 표상(表象)이다. 고려가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장절공께서는 목숨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왕건(王建)은 없었을 것이고, 고려(高麗) 또한 없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이다. 위왕대사(爲王代死)하신 장절공(壯節公)의 충절(忠節)의 피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우리 평산신씨(平山申氏)다.

- 두문동(杜門洞) 불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가서 절개를 지킨 만고충신(萬古忠臣)이신 선조님들!

· 퇴우(退憂) 익지(翼之, 14세)와 종부(宗婦) 정씨부인(鄭氏夫人) 내외분,

· 신귀재(愼歸齋) 이(彝, 14세)와 아들 봉상윤공(奉常尹公)파조 정도(丁道, 15세) 부자(父子)분,

· 개성윤(開城尹) 학아(學啞) 규(申珪, 14세)와 아들 한성윤공(漢城尹公)파조 하(夏, 15세),

· 집현전 한림(集賢殿 翰林) 우재(尤齋) 혼(琿, 14세)과 차자(次子) 대제학공(大提學公)파조 연(演, 15세), 계자(季子) 온수감공(溫水監公)파조 기(淇, 15세) 3부자(父子)분,

· 관문하성사(判門下省事) 윤하(潤夏) 우(瑀, 14세),

· 직랑도관 문림교수교도(直郎都官 文林教授教導)

순(珣, 14세) 등이다.

· 고려조정 옥쇄담당 지신사 사간공(思簡公)파조 호(浩, 15세)는 왕조의 신표인 옥쇄를 지키려다 빼앗길 위기에

이르자, 옥쇄를 궁궐 섬들에 던져 부수어 버린 용기 있는 충신으로, 이성계가 찾아와 개성 북강에서 사흘 밤낮을 막동장기로 회유해도 절개를 지킨 분이시다.

- 새나라 조선(朝鮮)에서 벼슬로 회유해도 불취(不就)한 여섯 분의 선조님들!

· 귀래와(歸來窩) 수(璩, 14세),

· 현령공(縣令公)파조 감(鑑, 15세),

· 사간공(思簡公)파조 지신사(知申事) 호(浩, 15세),

· 문하 전서공(門下 典書公)파조 호(灝, 15세),

· 장령공(掌令公)파조 정리(丁理, 15세),

· 이상공(貳相公)파조 인기(仁騎, 15세)등 이시다.

- 고려말 대의(大義)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절의 선조님들!

· 성재공(省齋公) 치(譚, 13세)와 실직재(失直齋) 백청(伯淸, 15세) 종조손(從祖孫)은 우왕 복위운동에 목숨을 바치셨다.

· 이유현 판사공파조 득청(得淸, 15세)은 동해에 투신해 순절함으로서 왕조 찬탈의 이성계에게 항거 하셨다.

· 사인공 신자성(自誠, 16세)은 태종 이방원의 회유정책으로 정몽주에게 이조 증직을 내리자, 옥보이는 더러운 일이라고 하고, 낙향하여 순절하셨다.

- 산에 들어가 조선과 인연을 끊고 은둔(隱遁)하신 세분의 선조님들!

· 평산(平山) 황의산에 은거한 불우산인(弗尤散人) 황의옹(黃衣翁) 안(晏, 14세)

· 숙부 황의옹(黃衣翁)을 따라 한천(寒川)에 은둔한 한천자(寒川子) 밀직공파조 아(雅, 15세)

· 선운산(仙雲山)에 들어가 은둔한 선운거사(仙雲居士) 장령공파조 정리(丁理, 15세) 등이다.

★ 壯節公의 의로운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 ★

宗中에 관한 研究②

군수공파도유사 신 권 채
(申權彩法務士, 34세)

☞ 종보187 호에서 이어집니다.

9. 宗中財産處分行爲

① 종중의 재산은 종중의 총유에 해당하므로, 그 관리·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한 바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따라서 총회결의 없는 종중재산처분은 무효(대법원 2000. 10. 27. 2000다22881)이며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한 종중원이 종산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용·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의 결의가 필요하다(대판 1967. 7. 18. 66다1600).

②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충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충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판 2010. 9. 30. 2007다74775)

10. 종중자체명의로 소유권취득

① 종중도 그 명의로 시효 취득 할 수 있다(대판 1983. 4. 12. 82누4214).

② 부동산실명법 제정 후에도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일부 종원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은 유효하며, 종래의 명의신탁이론이 적용된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 위 조항에 의한 특례의 인정취지, 다른 비법인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지파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제1호의 종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7. 10. 25. 2006다14165)

③ 종중도 그 자체 명의로 소유권 취득 및 등기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26조), 그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다(민소법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등의 당사자능력).

④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 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 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대판 2000. 2. 25. 99다20155).

⑤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판 2017. 10. 26. 2017다231249)

11.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절차

① 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민법제275조제2항, 제276조제1항)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판 2000. 10. 27. 2000다22881).

② 종중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 제276조(충유물의관리·처분과 사용,수익)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충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판 2010. 2. 11. 2009다83650)

12. 종중회의 결의방법

관습에 의하면 종회의 결의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즉 종중원의 과반수출석은 요하지 아니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정된다. “종중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된 이상 과반수출석이 아니어도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서 그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라고 하였다(대법1995. 8. 24. 선고64다1193)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관습이고 현재 이에 따른다.

13.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4조에 의하여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동법 제8조(종중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규정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은 명의신탁등기가 허용된다.

즉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허용된다.

14. 종중의 농지 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177호4)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위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요지집 제6권571항·572항).

15. 종중의 등기능력

종중이나 문중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취급되는 이상 종중이나 문중 그 자체에 등기능력이 있음은 당연하며 부동산등기법도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여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고 규정하여 종중, 문중이라는 비법인 사단에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16. 종중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

종중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법 제48조 제2항, 제49조)를 부여받고자 하는 종중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구 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①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②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③정관 기타의 규약
- ④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고전①]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신최(申最, 정언공파 22세)

출처 한국번역연구원

－ 治世之財散 散則國富 衰世之財聚 聚則國貧 －

[잘 다스려지는 시대(잘사는 나라)에는 재물이 흩어져 있어 나라가 부유해지는데, 쇠락한 시대(가난한 나라)의 재물은 한 곳으로 모이는데, 모이게 되면 나라가 빈곤해진다.]

[해설]

춘소(春沼) 신최(申最, 1619년-1658년)는 조선 중기의 저명한 문인이었던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년-1628년)의 손자이자 선조(宣祖)의 부마(駙馬)였던 낙전당(樂全堂) 신익성(申翊聖, 1588년-1644년)의 아들이다.

당대를 대표하는 명문가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그는 일찍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장래가 촉망되던 인물이었다. 그는 30세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순조롭게 관료 생활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큰형 신면(申冕 1607년-1652년)이 김자점(金自點)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비극적 최후를 맞은 이후로는 가문이 급격히 몰락하였다. 이에 따라 신최 역시 주로 외직(外職)을 전전하며 낭천(지금의 강원도 화천)현감(狼川縣監), 함경도사(咸鏡都事) 등을 지내고 40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삶은 고단하였지만 신최는 누구보다도 큰 포부를 지니고 살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올바른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집대성하여 모두 11편의 원(原)체 산문을 지었는데, 이 연작은 이른바 ‘십일원(十日原)’이라 불리며 큰 반향을 얻었다. 그중 한 편이 재물의 문제를 논한 「원재(原財)」이다. 이 글에서 신최는 부의 분배 문제에 대해 논하면서 부가 분산되어야 나라는 부유해질 것이고 부가 편중되면 나라는 빈곤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세금을 가볍게 하면 재물이 여러 사람들에게 흩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넉넉해진 개인의 재정을 활용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 기반한 주장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개인의 부가 축적되면 국가도 부강해진다는 생각으로, 신최는 이것야말로 『예기(禮記)』에서 말하는 “백성들과 그 이익을 함께한다(與民同利)”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비록 신최는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볼 기회를 가져보지는 못한 채 삶을 마감하였으나, 그의 견해는 현대의 성장론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 현대인들이 한번쯤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 부를 가졌던 그러지 않건 간에 조금이라도 더 부를 소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의 소유만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려될 때가 많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는 결국 다툼을 불러일으키게 될 뿐이다. 더 붙어 사는 사회 보다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신최가 주장했던 것처럼 부의 집중보다는 공정한 분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

[글쓴이 김광년(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고전②]

고려사(高麗史)국가보물 지정 예고

－ 시조 장절공에 관한 사료(史料)가 기록된 고려시대 역사서 －

고려시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고려사(高麗史:1449년~1451년 완성)’가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고려시대 역사서로는 처음으로 ‘고려사’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고려사는 시조 장절공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사료로 ‘고려사 신증본 열전’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申崇謙은 처음 이름이 능산(能山)이며, 광해주(光海州 춘천 : 당시 거주지로 추정)사람이다. 체격이 크고 무예에 뛰어나며 용맹스러웠다. 태조 10년에 태조가 공산동수(公山桐蘖)에서 견훤과 전투를 벌였는데, 전세가 불리하였다. 견훤의 군사가 태조를 포위하여 매우 위급한 상황이 되자 대장 신증본은 원보 김락(元甫 金樂)과 함께 힘껏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태조가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여 시호를 장절(壯節)이라하고 그의 아우 능길(能吉)과 아들 보(甫), 김락의 아우 철(鐵)을 모두 원윤(元尹)으로 임명하였으며, 지묘사(智妙寺)를 창건하여 명복을 빌게 하였다.(고려사 권92, 열전5, 제신, 洪儒 附 申崇謙) - 신호철의 나팔여초 -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상은 현존 ‘고려사’ 판본 중 가장 오래된 을해자 금속활자본과 목판 완질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도서관, 동아대 석당박물관에 보관된 6건이다. 문화재청은 “삼국시대 역사서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조선시대 역사서인 ‘조선왕조실록’ 등이 모두 국보·보물로 지정된 상황에서 ‘고려사’ 역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평가가 필요했다”며 “조선 초기에 편찬됐으나 고려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수록해 사실 관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고, 고려의 문물과 제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됐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였다.

※ 출처 및 자료 : 조선닷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나팔여초

건강한 생활

노년기 정신건강

노년기 정신건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우울과 불안, 치매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은퇴중후군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흔하므로 은퇴중후군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 일생의 반, 어쩌면 그 이상을 직함과 함께 불려왔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이름 석 자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확 쪼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은퇴 후 밀려오는 외로움, 거기서 파생된 슬픔이나 분노, 허무한 감정을 느끼는 현상을 은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증후군은 독특하게도 은퇴 당사자와 배우자에게 다른 이유와 양상으로 동시에 찾아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난 뒤 부인이 병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일할 때 아내는 주로 친구들과 만나 정서적인 면을 달래 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온종일 같이 있다 보니 낯선 사람과 있는 것처럼 불편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남성이 은퇴 증후군을 겪게 되면 아내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럴수록 아내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게 되는데요. 평소 간단하게 처리하던 식사를 하루 세끼 차려야 하다 보니 밥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최근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것도 은퇴 증후군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살펴보면 은퇴 후 심리적 후유증이 큰 사람일수록 그동안 집보다는 직장과 같은 외부에 생활의 중심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늘어난 여가 시간에 대한 노후가 부족한 것이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은퇴자분의 마음부터 변해야 합니다. 남편이 일에 매진할 때, 아내 역시 가사 활동을 하며 대외적으로 친구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무며 외로움을 달랬던 것을 인정하고, 아내의 시간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퇴한 분들은 일 중심에서 탈피해 외로움을 다루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원봉사나 취미활동 인간관계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노후를 위해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처럼 '좋은 부부관계'를 위한 '관계 체테크'도 해야 합니다. 평소 대화가 많고 함께 하는 활동이 많은 부부일수록 은퇴 후에도 행복한 관계를 지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취미나 종교활동, 운동 같은 걸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노년기 우울증은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과 질환인데 일반 성인 우울증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우울증상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신체증상이나 건강에 대한 불안, 기억력장애, 불면 등을 먼저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성 통증이나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여 치료가 늦어지거나 때로는 노년기 우울증이 기억력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성치매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성치매는 말 그대로 가짜치매란 뜻인데 노년기 우울증의 건망증이나 집중력 저하가 치매로 오진하기도 하므로 우울증은 아닌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또 노년기 우울증은 불면증 치료만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기도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가벼운 우울감이나 피로를 동반한 불면은 잠을 잘 주무시게 해드리는 것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3주 이상 불면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우울, 불면, 치매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운동입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노년기 정신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보조 치료입니다.

[문화부 제공]

인사

▶ 신임 상임유사



- 제정공파중종 도유사(濟靖公派宗中 都有司)
- 신형섭(申亨燾 36世), 1957년 1월 23日生
- 前 대구경북화학회 청장년 회장
- 前 표충재 중종 감사
- 2020년 7월 21일자



- 한성윤공파중종 도유사(漢城尹公派宗中 都有司)
- 신동수(申東洙, 諱名 鉉洙 33世), 1936년 5월 5日生
- 광주전남화학회 부회장, 한성윤공파중종 부도유사
- 선원공중종회장, 토목분야 측정 설계 감리 전문
- 2020년 11월 5일자

종원동정

신종대(申種大, 판사공파 36世)

정책학(政策學) 박사 학위 취득



宗은 판사공파중종 도유사이며 영덕향교 전교인 성수(盛壽, 35世)와 의성 김신자 여사의 차남으로 경북 영덕군 지품면 북곡리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안동으로 유학하여 경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여 지난해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전 김광림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김현동 국회의원(안동·예천지역) 보좌관으로 재임 중이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본인의 꿈을 이루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하고, 또 평산신씨의 위상을 더 높이기를 기대한다.

신명철(申明澈, 이상공파 34世)

미국 변호사(辯護士) 시험 합격



충남 예산이 고향인 명철宗은 아버지 현택(鉉澤, 이상공파 33世)과 김선홍(金善洪)여사와 사이에 장남으로, 예산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한 수재로,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여

4년간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2회 도전 끝에 지난해 12월 10일에 미국 워싱턴DC 변호사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

다. 또 명철宗은 CPA(공인회계사) 과정도 졸업하여 회계사 자격증도 함께 취득하였다.

宗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워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조금 더 경력을 쌓은 후 한국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어려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승승장구하여 본인의 영광은 물론, 평산신씨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고, 또 가문을 더욱 빛내기를 기대한다.

『일곱 번씩 일곱 번의 오늘』 시집 발간 진사공파 도유사 신표균(申彪均, 32세)



표균 진사공파 중종 도유사는 2020년 10월 시집(詩集) 『일곱 번씩 일곱 번의 오늘』을 발간하여 많은 종원들의 축하와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표균 도유사는 『心象』 신인상으로 등단 이후, 시집 『어레미로 본 세상』 『가장 긴 말』, 편저 참꽃시 100인 선집 『참꽃』 『달성 100년 참꽃 1000년』, 논문 『김명인 시의 길 이미지 연구』 등 많은 작품을 출간하였으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진행 중이다.

표균 도유사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인문 정보대학원 문화예술학과(문예창작 전공)를 졸업하고,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한국문인협회달성지부 회장을 역임(현 고문) 하였으며, 현재는 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 및 비영리법인 도동시비동산운영회 회장(현)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균 도유사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인문 정보대학원 문화예술학과(문예창작 전공)를 졸업하고,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한국문인협회달성지부 회장을 역임(현 고문) 하였으며, 현재는 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 및 비영리법인 도동시비동산운영회 회장(현)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명인 시인은 품평에서 “신표균의 『일곱 번씩 일곱 번의 오늘』을 읽노라면 수사나 비유로는 닿지 못할 허기나 갈증과 마주친다.”라고 말하고 “~ 세대의 우여곡절을 온 몸으로 겪고서도 그는 젊은 날의 초심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나이를 잊은 정정한 청년의 기상을 시로 구현해 낸다.”고 말했다. 또 김시인은 “그런 뜻에서 나는 신표균의 시에는 리얼리티(현실존재)가 넘쳐 난다.” 평하면서 “시인의 자각은 사랑으로 사무쳐야 할 지구적 삶의 도리를 일깨운다. 이 각성은 개천에서 난 ‘용’만 아니라 범부(凡夫)도 함께 다가서야 할 일상의 깨달음인 것이다.”고 혹평하였다.

한편 표균도유사는 평산신씨 대중중의 편집종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요즘 대중중 종규의 개선을 위하여 편집종규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 주재하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종규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정보는 2021년 4월 20일 발행 예정입니다.

4번째 시집 『당신의 바다』 발간

신용기(申容基, 譜名: 鉉基, 사간공파 33세)



신용기 시인은 2020년 12월 시집(詩集) 『당신의 바다』를 책으로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시집은 4번째로서, 제1집, 제2집, 그리고 제3집 『빨간 립스틱과 맥주』 발간 이후 5여년 만에 펴낸 시집으로 오랫동안

점찍어 왔던 자료들을 모아 이번 제4시집에 담아 평소 보살펴 주시고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올려 드리고자 이 시집을 세상에 내놓았다고 한다.

용기 시인은 전남 영암출생으로 30여 년간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정년으로 퇴직한 뒤 60대 늦깎이로 ‘문예시대’에 등단하였다.

용기 시인은 고향 사랑과 가족애 그리고 각종 행사장 축하, 추모 시 등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인간사의 이모저모를 낭만적 서정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시(詩)속에 아가자기하게 수채화처럼 수놓고 있다. 또 시를 쓰고 싶을 때만이 가장 행복했고 진실로 살아 있는 것 같았으며 모두 잠든 밤 홀로 깨어 시를 쓰고 있노라면 내 몸이 발광체처럼 파랗게 빛을 내는 것 같다고 시인은 말했다. 또 박선옥 시인은 “용기 시인의 모든 풍경은 은유로 표현되며 상투적일 수도 있는 은유가 강한 맥박과 부드러운 호흡이 역동적으로 다가온다.”고 평했다.

또한 용기 시인은 영암문화회원을 비롯하여 여러 문학회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광주광역시 시인협회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동호인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춘천 시조 장절공

춘향제(春享祭) 안내

2021년도 시조 장절공 춘향제는 4월 14일(음력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2020년도 춘향제와 추향제는 코로나19 질환의 확산으로 대중중 제례위원과 강원도화수회 제례위원 등 약간 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춘향제 봉행도 지금으로선 정상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예상되나, 향후 동 질환이 백신과 방역으로 호전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며, 4월 초순경에 파종중이나 화수회를 통하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중중(02-776-6111, 6151) -

▶ 바로잡습니다 ◀

2020년도 장절공 추향사 성금추가 : 제정공파 매곡중종 10만원

2020년도 종보 성금 보내주신 분 (1. 1 ~ 12. 31)

개 인

신주섭 경기도 안산시	30,000	신현구 경기도 수원시	20,000
신현부 경북 성주군	20,000	신동길 강원도 횡성군	40,000
신형선 충남 금산군	30,000	신동환 경기도 화성시	30,000
신현승 경북 구미시	50,000	신준섭 서울시 강서구	20,000
신용기 광주시 남구	30,000	신현균 서울시 구로구	30,000
신경현 광주시 북구	30,000	신재교 대구시 달서구	20,000
신영돈 경기도 양평군	50,000	신재수 경기도 김포시	30,000
신균채 서울시 성동구	20,000	신주생 전남 진도군	20,000
신형철 광주시 동구	30,000	신동욱 부산시 진구	20,000
신광현 경기 남양주시	20,000	신민균 충북 청주시	20,000
신귀현 대구 수성구	30,000	신숙조 서울시 관악구	50,000
신인호 서울시 구로구	20,000	신영준 전남 곡성군	20,000
신현호 "	20,000	신조현 경기도 의정부시	30,000
신석준 "	20,000	신현상 서울시 동작구	20,000
신현철 충남 예산군	30,000	신현목 경기도 화성시	30,000
신현직 경기 안양시	20,000	신홍균 대구 수성구	20,000
신갑술 전북 정읍시	30,000	신현전 전북 정읍시	30,000
신남철 충남 서산시	20,000	신현우 서울시 도봉구	20,000
신현하 울산시 남구	20,000	신정철 인천시 남동구	50,000
신현식 경남 사천시	50,000	신창동 서울시 서초구	20,000
신범진 서울시 강북구	20,000	신우식 경기도 안양시	20,000
신준철 강원도 원주시	30,000	신홍식 충남 홍성군	20,000
신현수 경기도 의왕시	20,000	신혜섭 서울시 도봉구	30,000
신무철 강원도 양구군	30,000	신진섭 대전시 유성구	50,000
신정섭 충남 태안군	20,000	신동언 전남 고흥군	20,000
신현덕 경기 안산시	20,000	신승동 경기도 과천시	20,000
신성균 경기 포천시	30,000	신동백 광주시 남구	20,000
신소남 울산시 울주군	20,000	신규호 미국 뉴욕시	86,056
신종현 서울시 관악구	30,000	신광휴 경북 영덕군	20,000
신삼현 강원도 속초시	20,000	신석준 서울시구로구	20,000
신동성 경남 창원시	20,000	신현호 "	20,000
신승수 광주시 북구	20,000	신인호 서울시 구로구	20,000
신재철 경기도 시흥시	30,000	신현주 경북포항시	30,000
신경수 전남 장흥군	40,000	신현태 서울시 성동구	100,000
신양수 경기도 고양시	30,000	신현식 경기도 성남시	20,000
신세호 경북 봉화군	50,000	신문철 충남천안시	20,000
신용주 경기도 성남시	50,000	신동순 경기도 화성시	20,000
신용환 광주시 서구	30,000	신장현 서울시 은평구	20,000
신현석 전북 익산시	20,000	신태철 서울시 은평구	50,000
신도균 서울시 동작구	20,000	신규철 인천시 중구	30,000
신현문 경기도 양평군	20,000	신태용 대구시 달서군	100,000
신광섭(신동의)대전중구	100,000	신문웅 서울시 성북구	100,000
신태문 경기도 하남시	20,000	신정섭 경기도 성남시	30,000
신동규 광주시 북구	20,000	신상철 강원도 홍천읍	30,000
신창균 서울 서초구	20,000	신필주 인천시 남동구	50,000
신기철 대구시 수성구	20,000	신원균 경북 안동시	100,000
신완섭 서울시 구로구	20,000	신광철 서울시 강남구	50,000
신동직 경기도 연천군	50,000	신태철 서울시 강남구	100,000
신성철 경기도 고양시	20,000	신영균 강원도 삼척시	20,000
신영철 서울시 양천구	20,000	신동준 대구시 동구	20,000
신항곤 전남 장흥군	20,000	신광섭 부산시 북구	20,000

파 종중

정언공파 종중	800,000	전서공파종중	100,000
군수공파 종중	100,000	밀직공파종중	100,000
이상공파종중	50,000	제정공파종중	100,000
편사공파종중	100,000	현령공파종중	100,000
표충재종중	100,000	온수감공파종중	100,000
한성윤공파종중	100,000		

소 종중

사간공파 홍립공파종중	100,000	밀직공파 집의공파종중	50,000
사간공파 경사공파종중	30,000	문화공파 우지종중	30,000

제정공파 한들종중	50,000	제정공파 합천종중	30,000
문화공파 창원서곡종중	40,000	제정공파 약목종중	100,000
사간동파 해정공파종중	50,000	한성윤공파 선원공파종중	60,000
제정공파 울산대문종중	30,000	제정공파 울산동상종중	50,000
문화공파 주촌종중	60,000	문화공파 금화종중	50,000
문화공파 송호종중	50,000	사간공파 매곡종중	50,000
정언공파 교동종중	50,000	사간공파 도리재종중	50,000

시도 화수회

부산경남화수회	100,000	전북화수회	100,000
인천시화수회	100,000	강원도화수회	100,000
광주전남화수회	100,000	대전충남화수회	220,000
대구경북화수회	100,000	서울시화수회	100,000

시군구 화수회

경주시화수회	100,000	영양군화수회	100,000
서울시마포구화수회	30,000	원주시화수회	100,000
판사공파 금호화수회	50,000	고흥군화수회	50,000
성남시화수회	100,000	김포시화수회	100,000
서울송파구화수회	30,000	정읍시화수회	30,000
거창군화수회	30,000	진주시화수회	100,000
해남군화수회	100,000	서울동대문화수회	50,000
김제시화수회	50,000	서울동작구화수회	30,000
포천군화수회	50,000	김천시화수회	50,000
서울중랑구화수회	30,000	용인시화수회	100,000
공주시화수회	160,000	상주시화수회	60,000
안양시화수회	50,000	평산경백문화재단	100,000
영주시화수회	100,000	영동군화수회	30,000
광주시광산구화수회	50,000	군산시화수회	100,000
서천군화수회	50,000	청송군화수회	50,000
홍성군화수회	50,000	담양군화수회	50,000
예산군화수회	100,000	서울중구화수회	50,000
서울광진구화수회	30,000	부천시화수회	50,000
영암군화수회	50,000		

총 계 : 9,256,056원

〈종보 배부 기준 및 성금〉

- ★ 파종중·시·도화수회 : 50부까지 년 100,000원
- ★ 소종중·시·군·구화수회 : 20부까지 년 50,000원
- ★ 종 원 : 1부 년 20,000원

* 종보가 부족할시 10부당 성금을 20,000원 추가함.

종 보 성 금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중중)
 인터넷저축 : 하나은행 027-766111-23504 (평산신씨 대중중)
 구 독 신 청 : 02)776-6111, 776-6151

2021년 1월 ~ 2021년 4월 행사 안내

- 1월1일 ~ 1월 31일 : 2021년 장학생 선발 서류 접수
- 1월1일 ~ 1월 31일 : 2021년 표창대상자 서류 접수
- 2월 17일(수) : 장학상별위원회 개최 예정
- 2월 19일(금) : 회계 감사 예정
- 3월 2일(화) : 정·부도유사 및 감사유사 회의 예정(오전11시)
상임유사회 개최 예정(오후 2시)
- 3월 10일(수) : 제1차 제례위원회 개최 예정
- 3월 30일(화) : 덕양서원 춘향제(음력 2월 중정일)
- 3월 31일(수) : 대중중 정기총회 개최 예정
- 4월 4일(일) : 승의전 춘향사
- 4월 5일(월) : 제정공파조 향사, 표충재 향사(한식일)
- 4월 14일(수) : 시조 장절공 춘향사(음력 3월 3일)
- 4월 20일(화) : 종보189호 발행 예정
- 4월 29일(목) : 율리사 향사, 경백사 향사(음력 3월 중정일)



謹賀新年

2021년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家內 康寧하시길 祈願 드립니다.

辛丑元朝

大宗中 都有司：澈秀

名譽都有司：相式	名譽都有司：甲湜	名譽都有司：吉淳
顧問：鉉銖	顧問：鉉塚	顧問：鉉德
顧問：龍水	顧問：璇澈	顧問：光淳
顧問：日淳	顧問：東振	顧問：東銀
副都有司：鳳湜	副都有司：文澈	副都有司：根澤
副都有司：鉉大	副都有司：東錫	副都有司：鉉文
副都有司：鉉德	副都有司：龍澈	副都有司：亨湜
副都有司：芳湜	監查有司：權彩	監查有司：民澈
監查有司：鉉晚	密直公派都有司：彦植	掌令公派都有司：鉉茂
縣令公派都有司：豪均	文僖公派都有司：鳳湜	正言公派都有司：文澈
漢城尹公派都有司：東洙	思簡公派都有司：根澤	溫水監公都有司：載湜
齊靖公派都有司：亨燮	齊靖公派都有司：東錫	貳相公派都有司：善均
判事公派都有司：盛壽	進士公派都有司：彪均	監察公派都有司：海澈
判尹公派都有司：城澈	參判公派都有司：鉉守	郡守公派都有司：權彩
龍山壇都有司：鉉大	表忠齋都有司：鉉文	德陽書院都有司：仁鉉
서울市花樹會長：鉉德	仁川市花樹會長：壽均	京畿道花樹會長：鉉晚
江原道花樹會長：龍澈	忠北花樹會長：杭澈	大田·忠南花樹會長：民澈
全北花樹會長：正次	光州全南花樹會長：相南	大邱慶北花樹會長：東夏
釜山慶南花樹會長：相修	濟州道花樹會長：芳湜	

大宗中 總務部長 鉉基 / 文化部長 相武 / 經理次長 朴兌晞(外孫) / 壯節公墓所管理所長 鉉澤 / 아세아빌딩管理所長 奉哲

[代議有司]

密直公派：敬熙，坎湜，在哲，在澈，東煥，東旭，亨燮，東曉 縣令公派：彦堯，彦琦 文僖公派：慶澈，東元，相泰，命植，鼎鉉，鉉光，晚圭，永鉉，鉉根，蓮寔，圭容，祉容，基亨，龍煥 正言公派：鳳均，爽圭，莊均，興均，鉉鎮，相澈，鉉圭，彦權，東國，七均，承澈 漢城尹公派：桂萬，周澈，辰燮，承萬，東鎮，明澈，儀燮，載坤 思簡公派：白淳，鉉官，燦澈，東雲，龍澈，東郁，祥燮，相古，鉉福，東福，東勳，弘均，榮燮，東日，冠燮，鉉澤 溫水監公派：忠湜，文湜，彦植，洪淳，翰燮 齊靖公派：東玉，相甲，雄均，元均，鉉瑪，廷燮，光秀，榮大，弘淳，東龍，東天，東完，榮戊，明均，根燮 典書公派：鉉和，東洙，亨燮，東一，弦宗 貳相公派：相均，澹澈，逸均，成澈，世均 判事公派：在煥，榮敦，在元，吉鉉，春大，容斗，在鶴，永壽，明鍾，俊太，孝根 進士公派：正熙，泰昇，點得，鉉周，東建 監察公派：香澈，東元 判尹公派：允茂，仁玉 參判公派：七均，浩澈 郡守公派：錫在，判錫 龍山壇：東彦，載沅 表忠齋：在鳳，在敦 德陽書院：東植，東坤 서울市(花)：文雄，昇，允廈，五均，晟澈，金鉉，載元，玉均，曰壽，孝湜 仁川市(花)：滿洙，鉉寬，鉉淑 京畿道(花)：光鉉，永喆，道鉉，奉澈，佑鉉，弘燮，鉉德，定澈，基奉 江原道(花)：根澈，鉉睦，長淳，國澈，聖浩 忠北(花)：東源，斗澈，相澈 大田·忠南(花)：基澈，東植，弘鉉，光燮 全北(花)：東烈，成湜，炳澈 光州·全南(花)：士鉉，昶日，東吉，興燮 大邱·慶北(花)：東一，相敦，相兆，洪兆，承澈 釜山·慶南(花)：相領，東勳，相圭，東述，興是，判湜，大澈，性澈 濟州道(花)：寬一，尙燮

[所管委員會]

祭禮系譜委員會：興均(正，委員長)，龍澈(思，副委員長)，東日(思)，東元(文)，承澈(正)，義浩(判)，鉉睦(思)，大秀(正)，佑鉉(文)
獎學賞罰委員會：東錫(典，委員長)，載湜(溫，副委員長)，東薰(思)，在鳳(判)，白淳(思)，鉉鎮(正)，光燮(文)，成澈(貳)，東建(進)
編輯宗規委員會：彪均(進，委員長)，弘鉉(文，副委員長)，鉉官(思)，周澈(漢)，垂澈(參)，金澈(思)，東基(齊)，彦琦(縣)，東完(齊)
財產管理委員會：鳳湜(文，委員長)，鉉德(文，副委員長)，在澈(密)，鉉和(典)，鉉珠(齊)，彦權(正)，東天(齊)